

구광모호, 역대 최대 인사... 젊은피·혁신 인재 적극 '중용'

LG, 정기 임원인사

LG전자 CEO 권봉석 사장
그룹 COO 부회장으로 선임

승진 179명으로 취임 후 최대
신규 임원 10명 중 6명 '40대'
고객중심 경영 확대에 포커스



권봉석
(주)LG COO 부회장



조주완
LG전자 사장 CEO



하범중 (주)LG CFO 겸
경영지원부문장 사장



김명규
LG디스플레이 사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

/뉴스

LG그룹이 대대적인 핵심 경영진 인사를 단행하며 '고객 중심' 경영을 확대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본격화한다.

LG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사회를 통해 (주)LG를 비롯해 LG전자와 LG화학,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 등 계열사에서 2022년 임원 인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광모표 '실용' 인사 가속화

LG는 이번에 전체 179명, 신임 상무만 132명을 발탁하며 2018년 구광모 대표 취임 이후 최대 규모 인사를 발표했다. 올해 양호한 성과를 낸 가운데, 잠재력과 전문성을 갖춘 젊은 인재를 과감히 기용해 고객가치와 미래준비를 도전적으로 실행한다는 전략이다. 중장기적으로 미래 사업가를 육성하고 CEO 후보 풀도 대폭 넓혔다는 설명이다.

전체 승진 규모도 179명으로 구광모 대표 취임 이후 최대 규모다.

신규 임원 중 40대가 82명, 62%나 됐다. 전체 임원 중 1970년대생 비중도 올해 말 52%로 절반을 넘어섰다. 1980년 생인 LG전자 신정은 상무가 최연소 임원이 됐다.

여성 임원도 9명이나 새로 뽑았다. 전체 여성임원도 55명으로 구광모 대표

취임 후 2배로 늘리면서 여성임원 중용 기조를 확인했다. 전략과 마케팅뿐 아니라 R&D, 생산 등 다양한 직무에서 승진하며 여성 인재에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 다양성도 제고했다.

사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재에도 기회를 늘렸다. 고객경험 데이터에 기반한 인사이트를 발굴해 사업에 기여한 LG전자 권혁진 LSR 연구소장을 상무로 발탁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한 인재 10명을 승진시키며 고객가치 실천을 체질화하는데 힘을 더했다.

◆지주사에 핵심인사 총집합

지주사인 (주)LG는 최고운영책임자(COO)로 LG전자 CEO 권봉석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해 선임했다. 권 부회장은 LG전자 CEO를 맡아 MC사업본부 철수와 LG마그나이트레인 설립 등 선택과 집중, 사업 체질 개선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앞으로 LG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준비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이에 따라 LG그룹에 핵심 경영진인 부회장은 다시 4명이 됐다.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은 그대로 직위를 이어간다.

LG전자는 권 부회장 빈 자리를 CSO

인 조주완 부사장에 맡겼다. 조 부사장은 1987년 금성사에 입사해 해외 주요 시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으며, 북미지역대표로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지능형 자율공장을 설립하고 최근 2년간 CSO로 과감한 M&A와 사내벤처 육성 등 혁신을 단행하며 능력을 인정 받았다.

(주)LG는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CO 산하에 미래신규 사업 발굴과 투자 등을 담당할 경영전략부와 지주회사 운영 전반 및 경영관리 체계 고도화 역할을 수행할 경영지원부문을 신설한 것. 각 계열사가 고객 가치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LG전자 '책임경영체제' 가속화

LG전자 역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전사적 역량 결집과 사업본부 중심 책임경영체제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CS경영센터는 고객가치혁신부문으로 승격하고, 고객가치혁신부문장에는 (주)LG 전자팀장이었던 정연재 부사장이 임명됐다. CSO 부문 산하 고객가치혁신담당도 고객가치혁신사무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고객가치혁신부문에 이관된다.

H&A사업본부와 HE사업본부 산하 고객경험혁신실도 고객경험혁신담당으로 격상시켰다. 디자인경영센터도 LSR 실을 LSR연구소로 높였다. 지난 7월 신설한 CDO 부문 AI빅데이터실도 AI 빅데이터담당으로 위상을 제고했다.

사업본부 체제는 H&A와 HE, BS와 VS 등 4개로 운영하기로 했다. H&A 류재철 사업본부장과 HE 박형세 사업본부장이 유임되고, BS사업본부는 장익환 신임 부사장이, VS사업본부는 은석현 전무가 맡는다.

◆계열사도 미래 준비 총력

계열사들도 임원 대상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성과를 중심으로 성장을 위한 인재 중용에 초점을 맞췄다.

LG에너지솔루션은 노세원 소형전자·개발센터장 전무 승진을 비롯해 상무 12명, 수석연구원 1명과 수석전문위원 1명 등 15명을 승진시켰다. 배터리 연구소를 CTO로 품질센터를 CQO로 승격, CTO 산하에 차세대 전지 개발 전

담 센터급 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CEO 직속 경영지원센터를 신설하고 LG CSR 팀장 이방수 사장을 선임, 사업 확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LG디스플레이는 POLED 사업 기반을 강화한 공로로 김명규 모바일 사업 부장을 사장으로 승진, 중소형 사업 부장을 맡기는 등 29명을 승진시켰다. O LED 핵심 기술을 개발한 윤수영 CTO와 김중우 CPO, 민용기 IT영업/마케팅 그룹장을 부사장으로 선임하는 등 OLED와 POLED를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 및 미래준비 강화에 중점을 뒀다.

LG이노텍도 3D센싱 모듈 사업 1위를 확고히한 문혁수 광학솔루션사업부장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성과 중심 9명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김기수 LG에너지솔루션 인사총괄 상무가 전무로 승진, CHO로 발령했다. LG전자 유병국 LG전자 VS스마트영업/마케팅담당 상무가 전장부품사업부장으로 새로 이동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생태계 확장

'데뷰'서 서비스 상용화 성과 등 발표
누구나 접근 가능한 플랫폼으로 진화

네이버가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플랫폼으로 재탄생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하이퍼클로바가 텍스트와 음성 외에 이미지도 함께 이해할 수 있게끔 개발 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는 25일 열린 '데뷰(DEVIEW) 2021' 컨퍼런스에서 하이퍼클로바의 기술 연구개발(R&D) 및 서비스 상용화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네이버는 우선 하이퍼클로바의 모달리티(modality) 및 언어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김형석, 이상우 연구원은 '하이퍼클로바 코리안 GPT3: 하이퍼스케일, 그리고 그 후'라는 세션을 통해 모델 개발 이후의 과제로서 모델 성능 평가와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와 음성 등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멀티모달(multimodal) 모델로 하이퍼클로바를 확장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현재 학습 중인 모델의 현황을 공개했다. 신성진, 김보섭 연구원의 '다중언어 하이퍼클로바' 세션에서는 하이

퍼클로바 언어모델을 다국어로 확장해,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이해하는 모델을 실험한 결과가 공유됐다. 김보섭, 김형석, 이상우 연구원은 하이퍼클로바는 문의 제1저자이기도 하다.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를 다양한 서비스에 상용화하는 과정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도 공유됐다. 광동현, 배상환, 함동훈 연구원이 발표한 '세상 빠르고 안전한 챗봇 만들기(Feat. 하이퍼클로바)' 세션에서는, 하이퍼클로바 기술이 독거노인을 위한 '케어콜'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설명했다.

/강준혁 기자 junhyuk@

중기중앙회, 충북 中企 애로해결 머리 맞대

이시종 충북지사 초청 간담회 열어

중소기업중앙회가 충북지역 중소기업 애로 해결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25일 충북 청주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기중앙회와 충청북

도가 워드 코로나의 단계적 실행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충청북도 지역경제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시종 지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외에도 윤택진 충북중소기업회장 등 충북지역 중소기업협동

합이사장, 운영섭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연일 충북지방조달청장, 충북 지역 유관기관장 등 34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후 도래하는 신 경제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참여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북형 취직 사회책임제 도입 등 14건을 건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세종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완공

LGU+ 차량 내 각종센서 데이터
현장 영상 스냅샷 1초 단위 수집

LG유플러스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주행 실증차량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완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세종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 사업자로 선정된 데 이어, 에스트라픽·웬타시스템테크놀로지·싸인텔레콤·바이브컴퍼니 등 전문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올해 초부터 약 10개월간 사업을 수행해왔다.

관제센터에는 차량 내 각종센서의 데이터는 물론 현장 영상 스냅샷을 1초 단위로 수집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끊임 없는 실시간 관제를 위해 V2X통신과 무선(LTE/5G) 통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채택했다. 원활한 통신을 위해 총 22식의 노면기지국(RSU)/신호제어기(CVIB) 등 V2X인프라가 설치됐다. 이 덕분에 관제센터에서 자율주행차량에 신호를 즉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5G전용 차량단말기와 도로의 변화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Dynamic맵 정보 수집 단말기(RFD)를 추가로 납품했다. 또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내부에서 관계자들이 자율주행차량이 보내온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한, 차량 내 장착 가능한 V2X단말기(OBU) 50대에 대해 오픈랩에 참여하는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 LG유플러스는 세종시 내에서 진행되는 자율주행 실증 환경의 다양화를 위해 기존 실증구간을 60km까지 늘릴 수 있도록 정밀지도를 확대 적용했다.

또한 상용화 구축된 고정밀 측위기술도 무상 제공해 기업, 기관, 학생들이 실증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채윤정 기자 echo@